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추스란* · 조한익**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고,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경남지역 3개 대학교의 재학생 62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다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 등을 실시하여 각 변인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는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는 자율성과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내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학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일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대학 내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의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만으로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반드시 자율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행동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57-98.

인지적인 측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문제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진로준비행동, 구조적 관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은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미래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최초의 준비를 하는 시기인 동시에 준비한 과정이 결실을 보는 단계로 인생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최혜승, 2014). 특히 대학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육을 받는 동시에 사회생활도 영위해야 하는 복합적인 시기로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탐색해 나가야 한다(문병상, 2011b). 따라서 대학 시기에 구체적인 미래지향목표의 설정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교육과정에 익숙해져 있고,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선택된 과정에 맞춰 교육받아왔다. 또한, 본인의 진로나 적성, 흥미, 목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학력만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주변 타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대학을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 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장현지, 2014; 정운정, 2009).

한국고용정보원(2013)에서 조사한 자료에 2012년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 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41.6%)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 이유는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32.0%), 세 번째 이유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9.3%) 나타났다. 대학 진학 이유의 41.3%가 주변 환경에 의한 선택 또는 타인에 의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런 수동적인 선택은 대학 진학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대학 또는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시기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위한 준비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eci와 Ryan(2000)은 미래지향목표를 스스로 결정한 미래의 열망으로 정의하였고,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런 미래지향목표는 미래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현재의 관점에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미래시간관점이론에서 연구되고 있으며(문병상, 2011c), Miller와 Brickman(2004)은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개인적으로 가치를 두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라고 정의하면서 미래지향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를 발달시키고 현재와 미래 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와 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문병상, 2013, 재인용). Bembenutty와 Karabenick(2004)은 미래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감소시켜줌으로

써 현재 당면한 과제의 완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채근정, 2014, 재인용). 이는 미래지향목표 설정 자체만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지향목표의 설정은 대학 시기에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Ginzberg와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도 대학생 시기를 현실적인 직업탐색 단계로, 자신의 진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박충훈, 2008). 김봉환(1997)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있어 인지나 태도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수행되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으로(류진숙, 2012; 정기홍, 2007), 이는 대학생 시기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김지선, 2012).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2012년 8.3%에서 2016년 11.6%까지 증가한 현실을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동욱(2013)의 연구에서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정연(2013)의 연구에서도 미래시간전망의 하위요인인 미래지향성이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최혜승(2014)의 연구에서도 미래지향목표가 진로결정 자율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적 가치에 의해 진로결정 자율성이 조절된다고 보았고 외적 가치 또한 목표 실현을 위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미래지향목표와 관련하여 진로준비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에 따라서 진로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자율성이라고 본다.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에 의한 규정으로 정의되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곽소영, 2007; Weinstein, Przybylski, & Ryan, 2012). 즉 타인에 의한 압박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선택이 아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하며,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개인의 학습, 성장, 발달에 대해 자연스러운 동기를 제공한다(최난경, 2012; Ryan, 1982). 따라서 미래지향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목표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지향목표의 설정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율성 개념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로의 선택에 의해 나타난 행동이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백옥경, 2014). 이러한 자율성은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의 변환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율성 발달의 결과는 성인기의 적응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 시기에 자율성을 확실하게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석민지, 2014; McElhaney & Allen, 2001).

자율성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정작 자율성을 개별요인으로 연구한 경우는 드물며,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율성을 개별요인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개념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은영(2006)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율성 측정을 위해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미결정에 약한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냈다. 김원희(2013)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지각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연구에서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의 자율성 하위 척도와 학업적 자기조절 질문지에서 내적동기 하위 척도 부분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율성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만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자율성이 원래 의도하는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진로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와 관련하여 외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내적 조절로 나누고 있어 내적인 진로결정 자율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자율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은 동기형태이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율성보다는 자율성을 통해서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성을 매개로 한 국내 연구가 많지 않지만, 석민지(2014)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행동적 자율성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이은실(2014)이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포함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아분화가 자기결정성을 통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냈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석희정(2015)이 연구한 결과, 생애목표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자율성을 포함하는 기본심리욕구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율성이 진로와 관련한 분야 및 생애목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율성을 단독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단독개념으로 정의하고,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강운심(2010), 김미주(2010), 박선영(2015), 박경숙(2013), 송지은(2013), 안형준(2013), 이정희(2015), 이종찬(2013), 장현지(2014) 등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학년에 따라 진

로준비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영미(2013)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미래지향목표, 근접하위목표, 과제도구성지각 및 자기조절전략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이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들로 인해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해서도 학년별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구조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에 따라 자율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을 매개하는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미래지향목표

1) 미래지향목표의 개념

미래지향목표는 미래시간관점이론(future time perspective theory)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930년대 초 Frank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김동욱, 2013).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생애목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신종호 외, 2011; 조한나, 2015). 미래지향목표는 근접목표와는 비교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미래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된다(문병상, 2011a). 미래시간관점이론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학습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학습행동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문병상, 2011c). Deci와 Ryan(2000)은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목표를 자기 결정된 미래의 열망이라고 정의하였다(진정운, 2014; 최영미, 2013).

대학생 시기는 학습 과정과 사회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로 학습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심가지거나 흥미를 느끼는 영역을 스스로 지각하여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미래 목표를 설정한다(문병상, 2011b). 이런 구체적인 미래지향목표 설정은 자신이 원하는 학습 성과, 진로방향 설정, 직업선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를 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 시기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성향은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친다(김동욱, 손원숙, 2014; Miller & Brickman, 2004). 또한 미래지향적인 성향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성향이라고 논의되어 왔으며, 미래목표의 설정과 함께 학생들의 인지 정도에 따라 학습 활동에서 학습동기와 지속성에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김동욱, 2013; Simons, Vansteenkiste, Lens & Lacante, 2004; Zimbardo & Boyd, 1999). 다시 말해, 미래지향적 성향이 높은 학생은 미래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낮은 학생에 비하여 학습활동이나 학습동기 또는 학습 지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김동욱, 2013; 박분희, 김누리, 2012; Simon et al., 2004).

초기의 연구에서 학자들은 미래지향목표를 내·외재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하는 경우가 많다(문병상, 2011a). Kasser와 Ryan(1993)은 내·외재적으로 구분된 미래열망지수를 통해 돈이나 부와 같은 외재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부정 상관을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내재적 목표가 심리적 안녕감의 상승, 고통 감소와 관련이 있고, 외재적 목표가 활력의 감소, 심리적인 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진정운, 2014; Kasser & Ryan, 1996). 또한 Simons, Dewitte, 및 Lens(2000, 2004)는 학습 상황에서 내재적 미래목표를 가진 학생이 외재적 미래목표를 가진 학생보다 흥미나 자신감이 높고, 학습 지속성이나 심층 학습 전략이 월등했으며,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고 나타냈다(최혜승, 2014, 재인용).

이처럼 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의 설정은 학습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자, 미래의 진로나 직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단계이다. 특히 내재적인 목표의 설정은 외재적인 목표보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

미래지향목표의 구성요인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Nurmi(1991)는 미래지향목표의 구성요인을 교육, 여가활동, 미래의 가족, 미래의 직업, 사회의 기여, 물질적 부로 구분하였고, Gillies(1989)는 건강한 가족, 직업, 돈으로 구분하였다(김동욱, 2013, 재인용). 그리고 Kasser와 Ryan(1996)은 명예, 부자, 이미지, 개인성장, 공동체,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여 미래지향목표를 구분하였다(진정운, 2014, 재인용).

최근에는 미래지향목표를 내재적·외재적 동기이론의 관점에 의해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외재적 미래지향목표 두 가지로 구분한다(채근정, 2014; Lee 외, 2010). 문병상(2011a)은 내재적 미래목표를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향상시키며 다른 사람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외재적 미래목표는 물질적 소유를 성취하기 위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내재적 미래목표는 사회, 가족, 직업지향으로 구분하고, 외재적 미래목표는 명성, 부지향으로 구분하였다. 최영미(2013)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를 개인성장, 관계, 지역사회지향목표로 구분하고,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를 부, 명성, 이미지지향목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을 내재적·외재적으로 구분하고,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를 부지향목표(미래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여유를 즐기며 성공하는 것), 명성지향목표(미래에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길 원하는 것), 이미지지향목표(미래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로 분류하고,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를 개인지향목표(자발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선택하고 학습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관계지향목표(미래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 지역사회지향목표(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등의 선행을 하는 것)로 분류하고자 한다.

2. 자율성

1) 자율성의 개념

자율성은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하위이론 중 기본심리욕구 이론의 세 하위요소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중 하나로(조윤희, 2016), 자율성은 자기결정성이 등장할 때부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자율성이 보장되어야지만 유능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 중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백옥경, 2014; Ryan, 1982).

자율성 개념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내적 성향으로, 외적 자유와는 그 의미가

다르며 인간의 도덕적 성장과 발달에 있어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발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이다(안경수, 2011). 김경희와 이희경(2011)도 외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자율성을 규정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도 자율성을 자기 스스로에 의한 규정으로 정의하였고(Weinstein, Przybylski & Ryan, 2012),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가치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곽소영, 2007; 백옥경, 2014). 또한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이혜진, 2014; Ryan & Connell, 1989). 이런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본인의 가치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나타나며,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과의존관계에서 분리되거나 타인 또는 외적인 영향력과 구별되는 독립(자립)과는 다른 개념이다(김원희, 2013; 조윤희, 2015; Deci & Ryan, 2002; Weinstein, Przybylski & Ryan, 2012). 이런 자율성은 타인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본인의 결정이나 선택에 의해 나타난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할 때 자율적이라고 느끼게 된다(백옥경, 2014; 이수경, 2015). 또한 Deci와 Ryan(1985, 2000)은 자율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압박을 덜 느끼게 만들고, 갈등을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곽소영, 2007, 재인용).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율성 개념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의 발달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자율성의 발달 및 획득은 대학시기에 반드시 획득해야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김원희, 2013; 석민지, 2014; McElhaney & Alle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개념을 외부 간섭이나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본인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율성의 하위요인

자율성의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율성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연구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이나 기본심리욕구 이론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연구하여 자율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개별적인 요인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자율성의 하위요인은 Weinstein, Przybylski, 및 Ryan(2012)의 연구에서 개발한 자율성 척도를 바탕으로, 하위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첫 번째 요소는 자아 일치성(self-congruence)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행동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고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되어 경험 할 때를 의미한다. 자아 일치성의 개념은 신뢰성의 개념과 유사하며, 하나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요구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준수하는 것

을 기반으로 할 때 자율적이라고 한다.

두 번째, 통제 민감성(susceptibility to control)은 자아일치성과 달리 외부 압박에 대한 감정과 스스로에 대한 통제의 부재를 나타낸다. 즉 행동하기 위한 동기 부여의 내부 및 외부 압력의 부재로, 이는 자율성이 낮은 개인은 주도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압박을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관심 획득(interest-taking)은 공개적으로 내부 및 외부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자발적인 경향으로, 자신과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지속적인 통찰력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관심 획득은 수용될 수 있는 긍정적 경험과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기부여에 대한 관심으로 포함한다.

3. 진로준비행동

1)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국내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은 김봉환(1997)에 의해 처음으로 진로분야의 필수 탐구영역으로 개념화가 되었다(강윤심, 2010; 박충훈, 2008). 김봉환(1997)은 진로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지적능력, 적성 또는 성격, 흥미 등과 같은 개인의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 측면만을 주요하게 다루고 행동적인 측면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진로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송한나, 2013; 이현진, 2008; 최윤경, 2013). 진로라는 개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이나 취업이라는 개념 어느 한 부분으로 강조를 두기 어려워 등장한 개념으로, 개인 일생동안의 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축적해 나가는 일련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계현, 1995; 박기문, 이규너, 2009; 정수진 외, 2009; 진미석, 윤희환, 2002; 최윤경, 2013; Super, 1976). 즉, 진로는 직업이나 취업의 개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항, 2009; 최윤경, 2013).

진로준비행동 이전 초기에는 취업준비전략이나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 또는 진로탐색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었다. Jordaan(1963)은 직업탐색행동을 직업에 취직하여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뤄지는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활동이라고 하였고, 이제경(2002)은 취업준비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행동으로,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보았다(이종찬, 2013). 또한 Blustein(1990)은 진로탐색행동을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활동으로 보았고, Berlyne(1965), Blustein(1990)은 진로탐색행동을 자신과 외부환경 또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및 탐색 활동으로 보았다(최윤경, 2013, 재인용).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준비전략이나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 또는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을 한 이후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된다(강윤심, 2010; 김봉환, 1997; 류진숙, 2012; 정기홍, 2007). 따라서 진로에 대한 태도나 의식이 성숙되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김선중, 2005; 류진숙, 2012).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성인 전기에 해당되며, 성인 전기는 사회적 역할을 시작하는 단계로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주요 발달 과업이다(김말선, 2011; 송명자, 1995; 이연미, 2002;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 최윤경, 2013; Esters & McCulloh, 2008; 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Herr, Cramer & Niles, 2004; Savickas, 1999, 2005; Skorikov, 2007; Super, 1969, 1985, 1990; Vondracek & Porfeli, 2003). 또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을 앞둔 시기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봉환, 1997; 김미주, 2010).

이런 까닭으로 대학생은 스스로에 대한 진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행동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이런 준비행동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류는 학자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소들을 살펴보면 김봉환(1997)이 진로준비행동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및 노력으로 구분했고, 박완성(2003)은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직업·학과 결정 활동, 직업체험 활동 그리고 취업준비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김계현(2001)은 국내 진로발달 및 진로상담이론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로준비행동의 요인을 자기 발전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과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서희정과 윤명희(2011)는 진로준비행동을 학습 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 영역 그리고 취업 실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최윤경과 김성희(2012)는 자기이해 행동, 직업세계 탐색 행동, 직업능력 향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 진로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사항 등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하위요인 중에서도 정보수집활동, 도구준비,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에 대한 정보(자신의 능력, 성격, 흥미, 적성 등)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입사방법, 주요현황, 미래전망,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를 포함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두 번째,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활동은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또는 서적 등을 구입하는 활동이다. 세 번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도구나 서적을 구입하고 실제로 목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다.

4.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1)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간의 관계

대학생 시기는 진로결정이나 취업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기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목표설정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진로나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중도탈락과 같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목표 설정에 있어 자율성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래지향목표와 비슷한 개념인 미래시간전망, 생애목표 또는 미래목표 등으로 연구되어져 왔다(석희정, 2015). 자율성 역시 국내에서는 자기결정성 또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에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슷한 변인들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asser, Ryan, Zax 및 Sameroff(1995)와 Williams, Cox, Hedberg 및 Deci(2000)의 연구결과와 Sheldon, Krieger(2004)의 연구결과에서 생애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기본심리욕구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석희정, 2015, 재인용). 노현중(2013)도 생애목표를 내·외재적으로 구분하여, 내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석희정(201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애목표의 설정이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심리욕구를 향상시키며, 생애목표와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생애목표가 자율성을 포함하는 기본심리욕구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진로는 미래에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한 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장이나 발

달, 성숙에 따른 단계별 진학 및 직업 선택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조한나, 2015). 이런 진로에 대한 준비는 대학생 시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중요한 발달 과업이지만, 목표 설정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김봉환, 1997; 김지선, 2012). 대학생이 미래지향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 수립 등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이런 목표 설정을 통한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신종호, 진성조, 2013; 조한나, 2015). 또한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미래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재의 활동이 미래의 보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윤소정, 김정섭, 2012; 조한나, 2015).

미래지향목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와 관련한 진로성숙도(김동욱, 2013), 진로결정수준(최화영, 2105), 진로결정 자율성(최혜승, 2014) 등 다양한 변인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정연(2013)의 연구에서도 미래시간전망의 하위변인인 미래지향성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한나(2015)의 연구에서도 생애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시간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애목표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미래지향목표의 설정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사람은 자신이 행동의 근원이나 주체가 되길 원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Ryan & Deci, 2000). 대학생 시기에 이런 행동과 관련된 자유는 진로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른 진로결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차원을 의미하기 때문에(김수리, 2005; 이지혜, 2013), 무엇보다 행동에 앞서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자율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로에 대한 결정이 스스로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을 확장시켜나가거나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곽연옥,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연구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진로장벽(강윤심, 2010; 김선중, 2005; 이기엽, 2011)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박선영, 2015; 박숙경, 2013; 유미정, 2008) 등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과 연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율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지만, 자율성과 관련된 변인과의 선행연구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Lopez와 Andrew(1987)는 후기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과업인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초기 성인기의 진로탐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였고(정애경 외, 2008, 재인용), Kenny와 Rice(1995)도 부모로부터의 독립정도가 청소년 또는 초기 성인기의 삶과 직업적 탐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수경(2015)의 연구에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곽연옥(2013)도 자기결정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사회적 지지와 함께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매개효과를 통한 영향을 나타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혜진(2014)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류진숙(2011)의 연구에서도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 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혜(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자기결정성과 진로의식성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율성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기결정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율성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 분포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168	115	283
3학년	142	72	214
4학년	78	48	126
전체	388	235	623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생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시기로, 타인과 환경에 의해 제약이 가해진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하거나 결정을 내려야하는 대학생이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자율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생에 있어 진로, 즉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 동시에

직접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동을 하는 시기로, 본 주제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3개 대학의 4년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학생은 387명이고, 여학생은 235명으로 총 623명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미래지향목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Lee 외(2010)의 미래목표 질문지를 최영미(2013)가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변안, 수정, 보완한 미래지향목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표 2> 미래지향목표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외재적 미래지향목표	부지향	1, 7, 13, 19, 25	5	.938	
	명성지향	2, 8, 14, 20, 26	5	.909	
	이미지지향	3, 9, 15, 21, 27	5	.884	
외재적 미래지향목표 전체		15	.941	.963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개인지향	4, 10, 16, 22, 28	5		.855
	관계지향	5, 11, 17, 23, 29	5		.891
	지역사회지향	6, 12, 18, 24, 30	5		.899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전체		15	.942		

미래지향목표의 문항은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와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로 크게 분류하고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다시 구분한다.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는 부지향, 명성지향, 이미지지향으로 구성되며,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는 개인지향, 관계지향, 지역사회지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각 요인 당 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의 부지향 문항 예로는 ‘나는 미래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이며, 명성지향의 예는 ‘나는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다.’이며, 이미지지향의 예는 ‘나는 미래에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다.’이다.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의 개인지향의 예로는 ‘나는 미래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살고 싶다.’이며, 관계지향의 예는 ‘나는 미래에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이고, 지역사회지향의 예는 ‘나는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싶다.’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

다. 미래지향목표 척도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의 부지향은 .938, 명성지향은 .909, 이미지지향은 .884으로 나타났고 외재적 미래목표 전체는 .941로 나타났다.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의 개인지향은 .855, 관계지향은 .891, 지역사회지향은 .899로 나타났고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전체는 .942로 나타났다. 미래지향목표의 전체신뢰도는 .963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율성 척도의 요인타당화

문 항	관심 획득	자아 일치성	통제 민감성	공통분
b14. 나는 왜 내가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792	.233	.159	.706
b13.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한다.	.787	.228	.217	.712
b15. 나는 내 감정이 어떤지 살피는 것을 좋아한다.	.691	.171	.246	.576
b11. 나는 종종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반응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다.	.661	.228	.225	.545
b12.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두려움이나 근심이 생길 때 깊이 생각한다.	.522	.223	.104	.452
b4. 내가 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보면 내 자아 상태를 알 수 있다.	.287	.740	.122	.582
b3. 나의 행동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199	.678	.186	.539
b5. 나는 내가 원하거나 관심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정을 한다.	.162	.635	.226	.489
b1. 나의 결정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감정을 나타낸다.	.278	.602	.214	.480
b2.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확인한다.	.165	.522	.281	.410
b7. 나는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한다.	.114	.484	.231	.681
b6. 나는 내 자신에게 안 좋은 것들을 피하려고 한다.	.132	.456	.125	.241
b10. 나는 스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한다.	.288	.220	.712	.475
b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	.173	.285	.492	.456
b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몰입 한다.	.266	.378	.442	.492
고 유 치	6.044	1.537	1.176	
변 량	20.417	19.680	9.229	

2) 자율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며, 자기결정성 척도의 3개 하위요인 중에서 자율성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경우는 온전히 자율성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아니라,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일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학생의 자율성을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측정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einstein, Przybylski, 및 Ryan(2012)이 인간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변안하고 대학생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개발한 자율성 척도의 문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einstein, Przybylski 및 Ryan(2012)이 개발한 자율성 척도 15문항을 변안한 후 KMO와 Bartlett검정으로 요인분석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았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의 값은 .911로 1에 가깝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는 검정 통계값이 3816.317(df=105, p=.000)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초기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3개로 각각 6.044, 1.537, 1.176으로 나타났다. 고유치의 간격과 Scree test를 검토한 결과, 세 번째 요인까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고유치는 서로 완만한 형태를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성 척도를 3개로 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와 고유치를 종합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개수를 3개로 하여, 주축요인 분석과 베리맥스를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b1-b5번까지는 자아일치성, b6-b10번까지는 통제민감성, b11-b15번까지는 관심획득이라고 명명하였다. 15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번과 7번은 연구자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요인에 적재되어 문항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문항은 자아일치성 5문항, 통제민감성 3문항, 관심획득 5문항으로 총 13문항이다. 자율성의 요인별로 분산을 살펴보면 관심획득은 20.417%, 자아일치성은 19.680%, 통제민감성은 9.229%로 전체 분산은 48.908%로 나타났다.

<표 4> 자율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자아일치성	1, 2, 3, 4, 5	5	.827
통제 민감성	8, 9, 10	3	.696
관심획득	11, 12, 13, 14, 15	5	.863
자율성 전체		13	.892

본 연구의 자율성 문항은 첫 번째, 자아 일치성으로 문항의 예로는 ‘나의 결정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감정을 나타낸다.’이고, 두 번째는 통제 민감성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스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한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획득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종종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반응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다.’이다. 각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자율성 척도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자아일치성은 .827, 통제 민감성은 .696, 관심획득은 .863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의 전체신뢰도는 .892로 나타났다.

3) 진로준비 행동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명숙(2002)이 최근 인터넷과 대학 내 진로상담센터 등이 신설되어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해 추가한 2문항(8번과 12번)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검사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18문항으로 하위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정보수집활동으로 6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이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필요한 도구준비로 5문항이며, 문항의 예는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이다. 세 번째 하위요인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묻는 문항으로 7문항이며, 문항의 예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정보수집활동은 .897, 도구준비는 .820,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833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의 전체신뢰도는 .93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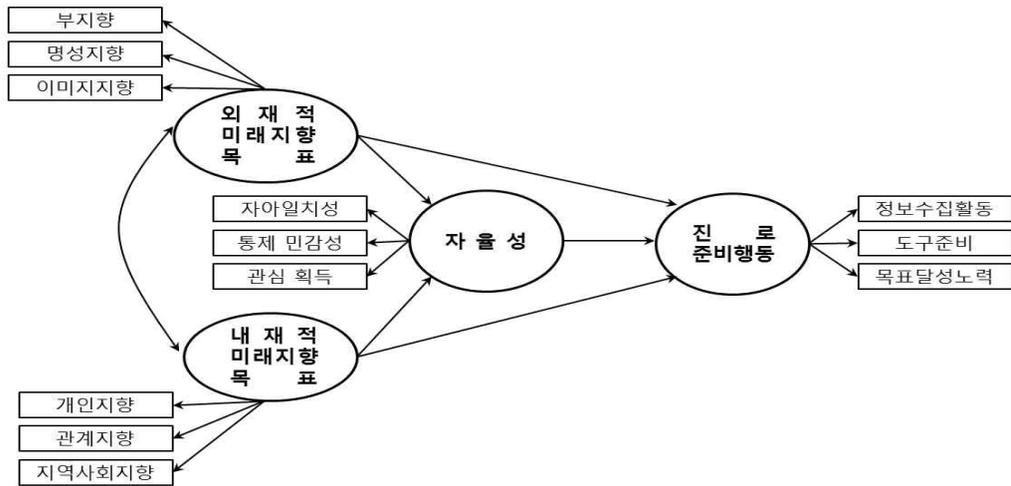
<표 5>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정보수집활동	4, 5, 6, 7, 8, 17	6	.897
도구준비	9, 13, 14, 15, 16	5	.820
목표달성 노력	1, 2, 3, 10, 11, 12, 18	7	.833
진로준비행동 전체		18	.938

3. 연구 자료의 모형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우선, 대학생의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목표 설정과 관련이 있으며,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에 따라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생애목표가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노현중, 2013; 석희정, 2015; 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Sheldon & Krieger, 2004; Williams, Cox, Hedberg & Deci, 2000), 미래시간전망의 미래지향성이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정연, 2013), 생애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이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연구(조한나, 2015) 등을 볼 때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율성도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곽연옥, 2013; 이수경, 2015) 등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자기결정성과 진로의

식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지혜, 2013), 생애목표와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석희정, 2015)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위와 같은 연구모형에서 미래지향목표는 외생변수에 해당하고, 미래지향목표의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잠재변수에 해당한다.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는 부지향, 명성지향, 이미지지향이라는 측정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는 개인지향, 관계지향, 지역사회지향이라는 측정변수를 가지고 있다.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은 내생변수로 구분하며, 잠재변수인 자율성은 자아 일치성, 통제 민감성, 관심 획득이라는 측정변수를 가지고 있고,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준비, 목표달성노력이라는 측정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변수

외생변수 / 내생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외생변수	외재적 미래지향목표	부지향
		명성지향
		이미지향
내생변수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개인지향
		관계지향
	자율성	지역사회지향
		자아일치성
		통제 민감성
진로준비행동	관심 획득	정보수집활동
		도구준비
		목표달성 노력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은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 상관분석, 모형의 적합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Bootstrap 200번을 실시하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다.

<표 7>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통계치

구분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진로준비행동				
	외재적미래지향목표			내재적미래지향목표			자아 일치 성	통제 민감 성	관심 획득	정보 수집 활동	도구 준비	목표 달성 노력		
	부 지향	명성 지향	이미 지 지향	개인 지향	관계 지향	지역 사회 지향								
미래지향목표	외재적미래지향목표	부지향	1.00											
		명성지향	.538*	1.00										
		이미지지향	.688*	.647*	1.00									
		내재적미래지향목표	개인지향	.642*	.595*	.741*	1.00							
			관계지향	.636*	.449*	.680*	.823*	1.00						
자율성		지역사회지향	.429*	.624*	.572*	.708*	.642*	1.00						
		자아일치성	.348*	.352*	.374*	.489*	.403*	.405*	1.00					
		통제민감성	.310*	.393*	.380*	.386*	.339*	.372*	.580**	1.00				
		관심획득	.247*	.292*	.356*	.424*	.371*	.409*	.528**	.527**	1.00			
		정보수집활동	.070	.327*	.133*	.140*	.034	.236*	.312**	.353**	.337**	1.00		
진로준비행동		도구준비	.036	.229*	.112*	.133*	.054	.217*	.288**	.328**	.343**	.751**	1.00	
		목표달성노력	.106*	.345*	.194*	.181**	.101*	.267*	.382**	.448**	.401**	.780**	.786**	1.00
	평균		20.998	17.660	20.117	21.160	21.700	19.615	19.104	10.990	18.902	18.560	15.592	21.682
	표준편차		3.985	4.688	3.994	3.464	3.550	4.070	3.163	1.985	3.574	5.602	4.499	5.687

* $p < .05$, ** $p < .01$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검증: 모형의 적합도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되는 변인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먼저,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의 상관은 .247(p<.01)~.393(p<.01)까지 나타났고, 모든 하위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은 .106(p<.01)~.345(p<.01)까지로, 명성지향과 이미지지향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지향의 경우 목표달성노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8> 변인들의 정규분포 검토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진로준비행동		
	외재적 미래지향목표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자아 일치성	통제 민감성	관심 획득	정보 수집 활동	도구 준비	목표 달성 노력
왜도	-1.718	-1.169	-0.868	-1.383	-1.704	-0.704	-0.208	-0.183	-0.268	-0.155	-0.096	.160
첨도	1.678	-0.564	.967	3.524	4.237	.658	.768	.814	.267	-0.361	-0.289	-0.043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의 상관은 .339(p<.01)~.489(p<.01)까지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은 .101(p<.05)~.267(p<.01)까지로, 개인지향과 지역사회지향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관계지향의 경우 목표달성노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9>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지수	χ^2	df	p	GFI	CFI	RMSEA(90% CI)
연구모형	202.496	46	.000	.948	.968	.074(.064~.085)

또한,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은 .288(p<.01)~.448(p<.01)까지로 나타났으며 모든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하위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00 이하이고 첨도는 7.00이하이면 정상분포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Chou & Bentler, 1995; Hancock & Mueller, 2006).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없기 때문에 ML(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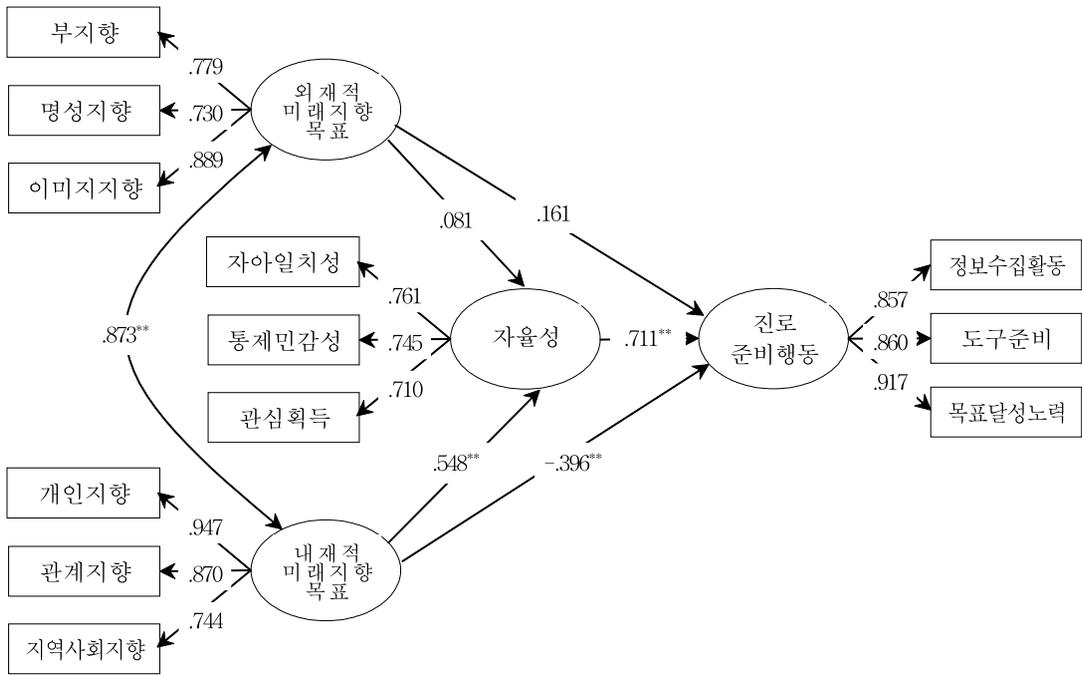
적합도 지수에서 χ^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이 크면 클수록 유의확률이 유의하게 나올 수 있어 모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 적합도 지수인 GFI와 CFI, 모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GF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RMSEA도 .05~.08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문수백, 2009; Hong, Malik & Lee, 2003).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202.496(p<.01)$ 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GFI=.948, CFI=.968, RMSEA=.075(90% CI=.064~.085)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변인들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모형에서 변인들간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외재적 미래지향목표	→ 자율성	.058	.078	.081
	→ 진로준비행동	.217	.145	.161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 자율성	.458**	.092	.548
	→ 진로준비행동	-.626**	.180	-.396
자율성	→ 진로준비행동	1.345**	.131	.711

* $p<.05$, ** $p<.01$

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081$, $p>.05$)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61$, $p>.05$). 내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48$, $p<.05$)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96$, $p<.05$).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711$, $p<.05$).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관한 최종모형

<표 11>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인	표준화 회귀계수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BC)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자율성→진로준비행동	.058	-.068~.255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자율성→진로준비행동	.390*	.199~.617

* $p < .05$, ** $p < .01$

2. 연구문제 2의 검증: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ootstrap 200번을 실시하고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의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인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할 경우 $\alpha =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의 값이 5%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성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는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058, p>.05$), 내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90, p<.05$).

<표 12>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적합도 검증

적합도지수	χ^2	df	p	CFI	RMSEA	$\Delta\chi^2$
형태동일성(모형1)	263.962	92	.000	.965	.055	모형2-모형1
측정동일성(모형2)	271.939	100	.000	.965	.053	$\Delta\chi^2=8.977(p=.344)$

3. 연구문제 3의 검증: 학년에 따른 차이 검증

학년에 따라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학년과 3, 4학년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한 제약 모형은 <표 12>와 같다.

<표 13> 2학년과 3, 4학년 간에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2학년			3, 4학년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자율성	-.097	.105	-.141	.205	.118	.281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진로준비행동	.004	.193	.003	.397	.223	.303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자율성	.570**	.129	.682	.335*	.134	.402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진로준비행동	-.457	.265	-.227	-.732**	.254	-.488
자율성→진로준비행동	1.325**	.199	.671	1.261**	.159	.703

* $p<.05$, ** $p<.01$

형태동일성 제약모형(모형1)은 기저모형으로 2학년과 3, 4학년 간에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가 같다고 보는 모형으로 두 집단 간 같은 형태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263.962$, CFI=.965, RMSEA=.055). 측정동일성 제약모형(모형2)은 2학년과 3, 4학년 간에 잠재변수에서 측정모형으로 향하는 요인부하량이 같다고 제약한 모형이다. 각 잠재집단에서 측정변수들로 향하는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271.939$, CFI=.964, RMSEA=.053). 측정동일성에서 형태동일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Delta\chi^2=8.977(p>.05)$ 로 나타났으며, $\Delta\text{CFI}=.000$, $\Delta\text{RMSEA}=-.001$ 의 차이가 생겨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 존재할지 모를 경로계수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각각의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학년과 3, 4학년 간에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13>과 같다.

또한 2학년과 3, 4학년에 따라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기저모형으로, 각각의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간의 남녀집단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χ^2	df	Δdf	$\Delta\chi^2$	ΔTLI
기저모형(등가제약모형)	271.939	100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자율성	275.570	101	1	3.632	.000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진로준비행동	273.647	101	1	1.708	.000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자율성	273.580	101	1	1.641	.000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진로준비행동	272.482	101	1	.543	-.001
자율성→진로준비행동	272.000	101	1	.062	-.001

* $p<.05$

2학년과 3, 4학년 간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에 따른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미래지향목표 척도와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율성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적합한 척도가 없어 외국 논문의 자율성 척도를 번안, 수정·보완하고 타당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자율성을 설정하여 구조적인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의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들의 기초분석을 통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Bootstrap 200번을 실시하고 최대우도법을 통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집단 분석을 통해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검증된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인 관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변인들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애목표를 내·외재적으로 분류한 노현중(2013)의 연구에서 내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재적 생애목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결정성 목표내용이론에서 내·외재적 목표가 각각의 심리적 안녕감을 다르게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김성수, 2015; Grouzet, kasser, et al., 2005). 이는 대학생들이 주변의 환경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해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를 추구하는 것 보다 스스로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를 추구할 때 자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타인과의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있으며, 경쟁을 통해 외재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은 기본적인 심리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본욕구의 충족을 저해하기 때문으로 예측할 수 있다(노현중, 2013; Deci & Ryan, 2000; Kasser & Rayn, 1993, 1996, 2001; Rijavec, et al., 2006, 2008; Ryan, et al., 1999; Sheldon & Kasser, 1998). 그리고 내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를 높게 설정할수록 더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래지향성이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연(2013)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의 설정 자체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강윤심(2010)의 연구에서 진로 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자기명확성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불안 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김선중(2005), 박숙경(2013), 박은정(2014), 유미정(2008) 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진로 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를 설정하였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쉽게 진로준비행동을 실천해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하위요인인 자기결정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곽연옥(2013)의 연구결과와 이수경(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 몰입을 매개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류진숙(2012)의 연구 결과와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혜진(2014)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자율성을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으로 연구하지 않고, 개별적 개념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보다 더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시기에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의 추구는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타인이나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의 박탈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재적인 미래지향목표의 추구는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내재적 미래지향목표가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희정(2015)의 연구에서 생애목표와 진로태도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의미하며, 특히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설정만으로는 진로준비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는 자율성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즉 내재적인 미래지향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킨다면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년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영미(2013)의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 근접하위목표, 과제도구성지각 및 자기조절전략간의 구조적 모형에서 학년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과 유사하다. 이는 최근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에 따른 차이 없이 스펙 쌓기, 자격증 취득,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 및 취업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년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학생들의 내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률적인 교육과정에 익숙해져 자율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성 함양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내재적인 미래지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행동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중에서도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자율성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학생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미래와 관련된 목표설정이나 진로 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 방향에서 자신의 내적 가치와 부합하는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타인과의 경쟁을 통하여 남보다 나은 직장, 높은 소득 또는 안정성 등을 따져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부적응이나 중도 탈락이 많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나 취업 문제에서 외재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재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환경이나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서 단순 스펙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내재적인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지원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 방향 설정 및 추후 사회 적응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자율성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적인 영향이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정적인 영향으로 바뀌었으며, 이를 통해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자율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창의성은 자율적인 상황이나 생각을 통해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자율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대학은 다른 교육 기관보다 자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율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대학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율성을 배제한 채 창의성만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진로 결정이나 준비행동에 관한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자율성과 관련된 요소를 많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내재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킨다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4년제 대학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학생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자율성 개념은 자기결정성이나 진로결정 자율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Weinstein, Przybylski 및 Ryan(2012)이 개발한 자율성 척도를 대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번역, 수정·보완하고 타당화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율성 척도는 자아일치성, 통제민감성, 관심 획득으로 하위요인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은 더 많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자율성 척도와 본 연구의 자율성 척도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생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인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내·외재적 미래지향목표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와 두 변인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2학년과 3, 4학년으로 학년을 구분하여 학년별 차이를 연구하였으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분에 있어 초기 연구모형에서는 학점을 포함하여 연구할 생각으로 학점이 없는 1학년은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1학년의 부재로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인원 수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학년에 대한 정확한 기준 및 분류를 통해 학년별 차이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강운심 (2010).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소영 (2007). 이성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에 따른 관계만족도: 자율성 정도와 갈등 해결전략의 매개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연옥 (2013).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결정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이희경 (2011). 긍정정서와 자기결정성 요인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2(4), 1353-1370.
- 김계현 (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계현 (2001). **상담심리학 연구2: 집단 진로 학업 가족 상담**. 서울: 학지사.
- 김동욱 (2013). 초등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와 진로성숙도 및 교과 성취도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와 진로성숙도 및 교과 성취도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7(3), 1-26.
- 김말선 (2011).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주 (2010).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수리 (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희 (2013). 청소년의 자율성과 지각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 성격과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중 (2014).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병상 (2011a). 내·외재적 미래목표, 과제도구성 지각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5(2), 219-234.
- 문병상 (2011b). 미래지향적 목표의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24(3), 665-683.
- 문병상 (2011c). 미래목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인과적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1), 45-67.
- 문병상 (2013). 내·외재적 미래목표 인식의 중단적 변화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1), 35-50.
- 박기문, 이규녀 (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2), 103-127.
- 박분희, 김누리 (2012). 과학영재의 미래목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 **영재와 영재교육**, 11(1), 73-96.
- 박선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경 (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 (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21-143.
- 박은정 (2014).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 효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충훈 (2008).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옥경 (2014). 대학생들의 성격적 강점, 자기결정성, 삶의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희정, 윤명희 (2011).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개발 및 진로행동 분석. **진로교육연구**, 24(3), 117-134.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57-98.

- 석민지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자율성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희정 (2015). 중학생의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자율 및 통제동기의 매개된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지은 (2013). 대학생의 성격 및 동기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한나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종호, 진성조 (2013). 생애목표유형이 학업적 자기개념, 학업노력,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취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27(1), 161-180.
- 안경수 (2011). 교육목적으로서의 자율성과 정서성의 통합에 대한 정당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윤정, 오현주, 김미경 (2011). 청소년의 행동합정과 미래시간전망이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3), 99-116.
- 안형준 (20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윤경,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2011).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7(3), 267-291.
- 유미정 (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정, 김정섭 (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학연구**, 26(2), 587-606.
- 이기엽 (2011).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진 (2012).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14). 학습동기와 자율성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직무창의성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구조적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경 (2015).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 이연미 (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2013). 자기개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전망의 매개효과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경 (2002).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133-154.
- 이현진 (2008).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14).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지 (201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홍 (2007).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모형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 김소연, 김관원, 류창열 (2009). **대학생의 진로발달**.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정운정 (2009). 대학생의 가족지지, 진로정체감, 진로신념과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 **인간발달: 발달 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조유희 (2016).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성 동기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나 (2015). 시간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생애목표, 목표불안정성의 매개효과 및 시간관 프로파일별 특성.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 (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석, 윤희한 (2002). 이공계 기피현상과 고등학생 진로지도. **진로교육연구**, 15(2), 1-21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57-98.

- 진정운 (2014).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미래지향목표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근정 (2014). 고등학생의 내·외재적 미래목표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 (2013).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근접하위목표, 과제도구성지각 및 자기조절전략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 (2013).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 김성희 (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085-2097.
- 최혜승 (2014).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에 따른 하위집단별 군집유형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13).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 제5장 학교생활·훈련 및 자격.
- Bembenutty, H., & Karabenick, S. A. (2004). Inherent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1), 35-57.
- Berlyne, D. A. (1965). *Structure and direction in thinking*. New York, NY: Wiley
- Blustein, D. L. (1990). *Explorations of the career exploration literatur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Boston, M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Deci E. L., & Ryan, R. M. (Eds.).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Esters, L. T., & McCulloh, R. E. (2008). Career exploratory behavior of post secondary agricultur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49(1), 6-16.
- Frank, L. K. (1939). Time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 293-312.
- Gillies, P. (1989). A longitudinal of the hopes and worries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2(1), 69-81.

-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Ryan, R. M., Saunders, S., Schmuck, P.,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00-816.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385-419.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span: Systematic approaches* (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Hodgins, H. S., Koestner, R., & Duncan, N. (1996). On the compatibility of autonomy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27-237.
- Jordaan, J. P. (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 In D. E. Super, R. Statishersky, N. Mattin, & J. P. Jordaan (Eds.), *Career development: Self concept theory* (pp. 42-48).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Gottingen: Hogrefe.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07-917.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s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Koestner, R., & Losier, G. F. (1996). Distinguishing reactive versus reflective autonomy. *Journal of Personality, 64*(2), 465-494.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ee, J. Q., McInerney, D. M., Liem, G. A., & Origa, Y.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Goal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4), 264-279.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6), 304-307.
- McElhaney, K. B., & Allen, J. p. (2001).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isk. *Child Development*, 72(1), 220-235.
- Miller, R. B., & Brickman, S. J. (2004). A model of future-oriented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1), 9-33.
- Weinstein, N., Przybylski, A. K., & Ryan, R. M. (2012). The index of autonomous functioning: Development of a scale of human autonom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4), 397 - 413.
- Nurmi, J. E. (1991). How do adolescents see their futur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nd planning. *developmental review*, 11(1), 1-59.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19-435.
- Rijavec, M., Brdar, I., & Miljkovic, D. (2006). Extrinsic vs. Intrinsic life goals, psychological needs and life satisfaction. In: A. Delle Fave (Eds.), *Demensions of well-being.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91-104). Milano: Franco Angeli.
- Rijavec, M., Brdar, I., & Miljkovic, D. (2008). Aspirations and well-being: extrinsic vs. intrinsic life goals. *Journal for General Social Issues*, 20(3), 693-710.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50-461.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on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avickas, M. L. (1999).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4), 326-336.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Sheldon, K. M., & Krieger, L. (2004). Does law school undermine law students? Examining changes in goals, values, and well-being.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2b, 261-286.
- Sheldon, K. M., Ryan, R. M.,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70-1279.
- Simons, J., Dewitte, S., & Lens, W. (2000). Wanting to have versus wanting to be: The effect of perceived instrumentality on goal orient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1, 335-351.
- Simons, J., Dewitte, S., & Lens, W. (2004). The role of different types of instrumentality in motivation, study strategies, and performance: Know why you learn, so you'll know what you lear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3), 343-360.
- Simons, J., Vansteenkiste, M., Lens, W., & Lacante, M. (2004). Placing motivation and future time perspective theory in a tempor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2), 121-139.
- Skorikov, 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1), 8-24.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 2-9.
- Super, D. E. (1976). *Career education and meaning of work*.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
- Super, D. E. (1985). Coming of age in Middletown: careers in the making. *American Psychologist*, 40(4), 405-411.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7-2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heldon, K. M., & Deci, E. L. (2004).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57-98.

Motivating learning,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synergistic effects of intrinsic goal contents and autonomy-supportive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46-260.

Vondracek, F. W., & Porfeli, E. (2003). World of work and careers. In G. R. Adams & M. Berzonsky (Eds.), *The Black well hand book of adolescence* (pp.109-128). Oxford, UK: Blackwell.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 Difference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1271-1288.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uture-Oriented Goals, Autonom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Chu, Seu Ran and Cho, Han Ik

The study is to verify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uture-oriented goals, autonom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s well as to verify mediation effect of autonom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oriented goa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basis of those research questions, 623 students in three universities in Gyeongnam area were selected. In analyzing the data, basic statistics, maximum likelihood, multi-group analysis were employed using SPSS 21.0 and Amos 1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 students' future-oriented goals, autonom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s found out to be appropriate. While the impact of external future-oriented goals on autonom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s found to be insignificant, internal future-oriented goals are found out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utonomy and a negative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as for the mediating effects of autonomy in relationship between future-oriented goa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t turns out that external future-oriented goal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ia autonomy, but internal future-oriented goal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ia autonomy. Third, in the relationship among future-oriented goals, autonom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is turned ou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grades. In the last parts, researchers provided a discussion on the research findings,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future-oriented goals, autonom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ructural relationship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57-98.

논문 투고일: 2016. 11. 20.

심사 완료일: 2016. 12. 08.

게재 결정일: 2016. 12. 10.